

光復 50周年 記念
海外碩學과의 對談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 Helmut Schmidt 前 서독수상과의 현지 대담 —

1995. 8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光復 50周年 記念
海外碩學과의 對談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 Helmut Schmidt 前 서독수상과의 현지 대담 —

1995. 8

對外經濟政策研究院





本院 柳莊熙 院長과 對談하고 있는
Helmut Schmidt 前 西獨수상 (1995. 6. 13)



序 言

올해로 우리나라는 光復 50周年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50年間 우리 經濟가 이룩한 괄목할만한 發展相을 되돌아 보면서, 향후 50年, 또는 100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長期發展計劃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南北韓 統一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한 구성요소의 역할을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남북한 통일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는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強國들의 向배가 매우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은 韓國放送公社(KBS)와 공동으로 西獨의 前수상인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박사를 모시고 獨逸 現地에서 「光復 50周年 記念 海外碩學과의 對談」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슈미트 首相은 지난 1974년-1982년의 기간 동안 서독수상을 역임하던 중, 당시 동독과의 和解·協力정책을 통하여 統一의 基礎를 닦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의 가능성이 대두되자, 정파를 초월하여 統一政策의 助言者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本 對談에서 슈미트 首相은 독일이 수차례의 「4+2 會談」을 통해 周邊國을 說得함으로써 성공적으로 통일에 이르른 것처럼, 우리도 韓半島를 둘러싼 周邊強國의 정책을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취약한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도, 우리의 統一政策이 조만간 成功的 結實을 거둘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本書는 지난 8月 18日 KBS 제1TV를 통하여 방영된 내용을 중심으로 실제 대담의 모든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당초 「海外碩學이 보는 統一韓國의 未來像」이라는 주제로 現地 대담이 실시되었으나, 대담의 중점사항을 고려하여 本書의 題目을 「東北亞 情勢와 韓半島 統一」로 정하고 약간의 體制整備만을 하였습

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英語로 진행된 대담의 原文도 收錄하였습니다. 끝으로, 슈미트 수상과의 對談을 錄畫하기 위해 대담장소인 독일 함부르크에서 헌신적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KBS TV 1局의 宋成根 PD, 柳漢周 PD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대담을 위한 事前準備와 進行에 많은 도움을 주신 本院의 朴成勳 博士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本書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政府 각 부처의 政策決定者는 물론이고, 同 分野에 관심을 가진 學者와 一般國民에게도 좋은 參考資料가 되기를 바랍니다.

1995年 8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長 柳莊熙

〈主要內容〉

인사말씀	9
韓半島 周邊 4強과 南北韓 統一	10
國際社會에서 日本의 役割	12
中國 改革政策의 展望	16
韓國의 世界化 戰略	20
韓國經濟의 將來와 教育의 重要性	23
獨逸型 反獨占政策의 示唆點	26
獨逸 統一政策의 教訓	28
韓半島 統一로 가는 길	32
統一을 위한 準備	36
맺는 말씀	37



【인사말씀】

유장희 원장 : 헬무트 슈미트 首相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수상께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이 光復 50周年을 맞이하는 올해 韓國經濟는 GDP 규모로 보면 세계 11위, 그리고 對外交易量으로 볼 때에는 세계 제 12위의 위치를 차지하는 등, 이제 바야흐로 世界經濟大國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복 50주년을 맞아 한국의 근세사를 돌이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國家發展計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세계 政治, 經濟는 물론 社會·文化問題에도 조예가 깊으신 貴下를 모시고 東北亞地域의 情勢를 중심으로 韓半島 統一과 繁榮을 위한 與件을 논의하는 이 자리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기념하여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光復 50周年 紀念事業」의 일환으로 韓國放送公社(KBS)와 對外經濟政策研究院(KIEP)이 마련한 본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슈미트 수상 : 柳莊熙 院長님, 이러한 중요한 인터뷰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향후 50년을 내다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는데요. 저는 약 35년 전인 50년대 말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1959년 당시로서는 한국이 35년만에 오늘과 같이 괄목할만한 成長을 이룩할 것이라고 豫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먼 장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제 경험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國家의 長期的 目標를 분명히 수립하고 있어야 하지만, 일단 政策的인 側面에서는 향후 4~5년, 길어야 10년 정도의 기간에 치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여러 차례 한국의 知己들과 만나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또 그들을 통해 한국의 상황에 대하여 자주 전해듣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韓國의 將來문제를 한반도 자체에 국한하기 보다는 東北亞라고 하는 보다 넓은 차원과 연결해서 고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약된 범위이긴 하지만 여전히 강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의 장래문제를 생각하는 데 간과할 수 없는 요소인 것 외에도, 특히 이미 강국으로 부상한 中國과 잠재적 강국이라 할 수 있는 日本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가 한국의 장래를 가늠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兩大 要素라고 생각합니다.

유장희 원장 : (일본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슈미트 수상 : 특히, 財政的으로 그렇습니다. 아직은 일본이 그런 자신의 능력을 국제정치에 동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만한 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日本은 世界的 強國이 될 것입니다. 자, 序論은 이만 할까요.

【韓半島 周邊 4強과 南北韓 統一】

유장희 원장 : 韓半島 주변 강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반도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한국이 주변국들의 덕을 보기 보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 끊임없이 눈독을 들여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장래와 특히 韓半島의 統一에 中國, 日本, 러시아 및 美國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슈미트 수상 : 그렇습니다. 유장희 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中國, 日本 그리고 러시아의 주변 3국은 두가지 측면에서 韓半島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日本의 경우에는 한국을 강점했었습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한반도가 분단되자 中國과 러시아는 북한이 철용성을 쌓고 自由世界에 대해 완강한 敵對感

을 키우도록 지원해 주었던 것입니다. 유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역학구도 속에서 均衡者 役割을 하는 것이 美國인 것입니다. 저의 知己인 싱가포르 이광요 前首相의 표현을 빌리자면 동아시아 지역을 통털어 실로 美國이 가장 의심을 덜 받고 있는 強大國입니다. 강대국간에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미국의 역할을 재미있게 표현했지요?

유장희 원장 :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그 말이 맞겠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韓半島 統一에 대해 각 강대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中國의 경우 6.25에 참전한 바 있고, 또 당시의 蘇聯은 6.25전쟁 발발의 背後勢力이었습니다. 日本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대륙세력이 강화되는 데 대해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세 나라는 모두 韓半島를 극동지역에서의 勢力間 緩衝地帶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의 판단이 옳다면, 이 세 나라가 南北韓이 統一되어 한나라가 되는 것을 용인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는데요?

슈미트 수상 : 글썄요. 만약 제가 中國指導者의 입장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의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韓國보다 인구나 영토 면에서 20배 이상 큰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두려워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반도의 통일이 日本의 主導下에 이루어질 경우, 中國이 강력히 反對하겠지만 이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 아닐까요? 러시아의 경우, 중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리라 생각되지만 韓半島의 統一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주변의 세 강대국 중에서 어쩌면 日本이 한반도의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국민들에게 무엇인가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戰後謝過 問題를 둘러싸고 일본이 온통 떠들썩한 적이 있었지요. 한국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전쟁위

안부 등 과거 일본이 한국국민들에게 끼친 害惡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이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이내에 제정신을 찾고 지금의 용졸한 태도를 고치리라 봅니다. 하지만 韓國을 자국의 競爭對象으로 경계하는 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은 이미 日本의 주요 競爭對象으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國際社會에서 日本의 役割】

유장희 원장 : 하여간 과거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독일과는 너무 다릅니다. 獨逸은 2차대전을 일으킨 責任을 솔직히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나라에 대해 과감히 謝過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데 어떻게 인색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슈미트 수상 : 그 질문에 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점을 의미깊게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독일의 전후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민 쪽은 독일이 아니라 프랑스였다는 점입니다. 프랑스가 協力을 提議했고 독일이 따라가는 형태였습니다. 유럽共同體의 구상을 실현시켜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프랑스, 獨逸, 이태리 그리고 베네룩스 3개국으로 시작했지요. 그러다가 英國이 참여하는 등 회원국을 늘여갔습니다. 처음 6개국이 9개국으로 다시 12개국에서 이제는 15개국이 되었습니다만 머지 않아 또 다른 회원국이 가입할 것입니다. 둘째, 獨逸이 소위 東方政策(Ostpolitik)의 기치를 걸고 소련을 위시한 東歐圈 國家들 즉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기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과의 理解增進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 것도 전후 오랜 기간이 지난 1970년대였습니다. 셋째, 일본인의 情緒(mentality)가 獨逸人과는 사뭇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歷史的 經驗의 差異에서도 유래합니다. 독일이 좁

은 대륙의 중간에 끼어 있어야 했다면 일본은 대륙에서 떨어진 섬나라였으므로 섬나라根性이라는 것이 있지요. 유럽은 아주 좁은 대륙이어서 독일은 아홉 개의 이웃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살아야 했지만, 일본은 살을 맞대는 이웃이 없습니다. 이런 점이 日本과 獨逸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전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도 여러 가지 점에서 여전히 섬나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유럽의 경우에도 대륙에 위치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和蘭, 프랑스와는 매우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섬나라 英國에서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유장희 원장 : 여기에 東洋文化的 影響이나 國民性的 差異같은 점들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요?

슈미트 수상 : 아닙니다. 人種間的 性格差異라는 설명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 이 문제는 동양제국의 文化的 遺産과도 커다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중국민족과 일본민족 사이에서 어떠한 공통점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韓國민족의 경우에는 어떨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日本과 中國間에는 매우 커다란 差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민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125년전 개국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섬나라 멘탈리티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일본민족의 섬나라근성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일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日本의 經濟政策 때문일 것입니다. 日本의 經濟政策은 특히 여러 나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일본은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의 교역에서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의 무역수지흑자는 교역상대국으로부터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 자체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

니다.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일본은 自體市場開放과 流通構造의 改善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슈미트 수상 : 일본의 경제정책에 대해 너무 염려할 것은 아니라 봅니다. 日本은 수많은 나라에 資本을 提供해 주고 있는 경제대국입니다. 예를 들자면 日本의 貯蓄이 없다면 미국 재무성이 예산을 꾸려나갈 수 없다는 식이지요.

유장희 원장 : 그런 이론이 있기는 하지요.

슈미트 수상 : 아닙니다. 그건 이론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獨逸도 日本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없으면 예산집행을 못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日本의 經濟政策에 대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국내를 보시지요. 일본은 여전히 자국민들에게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주택문제에 치중하면 얼마든지 보다 나은 집을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日本人들은 아직도 “토끼장”이라고 불리는 좁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자체의 社會保障體系나 社會間接資本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貿易 및 對外資本收支의 黑字를 이용하여 훨씬 나은 社會保障體制를 위한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사람이라면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들의 심리적 태도에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특히, 한국의 政治엘리트들은 수세기전 프랑스가 독일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을 향해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기업이 변하고 한국국민들의 태도가 바뀌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태도가 훨씬 友好的으로 發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장희 원장 : 그렇습니다. 일본에 대한 한국국민들의 태도에 관한 한, 韓國國民들이 훨씬 허심탄회하고 더욱 寬容할 姿勢가 되어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

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것은 일본이 과거의 실수를 반성하고 이 지역에서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임을 먼저 밝혀야 할 것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日本은 2차대전, 太平洋戰爭에서 저지른 過誤를 公式的으로 謝過해야 하겠지요.

슈미트 수상: 일본의 불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일에 순서가 있다는 말씀은 제 생각과는 다르군요. 프랑스가 독일에게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한 것은 2차대전이 끝나고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은 1950년이었습니다. 獨逸聯邦共和國이 성립한 직후라고 할 수 있지요. 독일은 과거 프랑스에 끼쳤던 해악에 대해 사과하는 기회조차도 갖지 못했습니다. 프랑스가 먼저 나섰던 것입니다. 프랑스가 이끄는 데 힘입어 독일도 자신이 저지른 해악을 뉘우치는 자세를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日本人들에게는 물론 한국국민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입니다. 제가 여러분이라면 틀림없이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관용의 손길을 내밀면 많은 분야에서 여러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韓日間에 잠재해 있는 그 緊張狀態를 끝까지 放置해 둔다면 韓半島 統一의 기회도 그것에 의해 妨害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유장희 원장: 글썄요. 하여간 걱정거리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문제에 있어서만은 한일간의 관계가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엔貨의 切上, 일본의 産業構造再編政策 등의 요인에 따라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기업과의 提携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제는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해외로 이전해야 하는데, 한국을 가장 적격의 곳의 하나로 보는 것이지요.

슈미트 수상: 東京에서 실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財政政策을 決定하는 것도 결코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니라, 재무성, 통산성 그리고 다소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외무성같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日本의 官僚體制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政治人들은 실제 경제정책에는 거의 관여하지 못합니다. 韓國에서는 누가 經濟政策을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통령 측근인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다루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제 정보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이쯤에서 조금 전에 대화를 나누었던 極東地域의 文化에 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양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극동에는 中國人, 日本人 그리고 한국인이 있으며, 이 지역 전통문화의 주류는 유교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세 민족이 모두 정통성을 중시하고 위로부터의 권위가 옳다고 생각하지요. 儒敎가 民主化와 쉽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에 국한한다면, 민주화 분야에서는 일본이 다른 두 나라보다 다소 앞섰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관료체제에 의해 경제가 통제되는 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中國共產黨은 공산주의 색채가 강한지 유교색채가 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中國 改革政策의 展望】

유장희 원장: 글썄요, 제 견해로는 中國이 과거 유교체제를 지속시켰다면 지금 중국의 체제가 한 정당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식으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中國에서 실제로 모든 것을 獨裁하는 것이 中國共產黨이자 黨의 書記들입니다.

슈미트 수상: 그렇습니다. 저는 모택동과 많은 그의 後繼 指導者들을 알고 지내왔습니다. 등소평도 20년 넘는 기간 동안 저의 知己입니다. 등소평이 30대 후반

에 중국공산당의 경제관념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가히 놀라운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個人的權威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러한 개인적 권위는 中國人民들이 윗사람에게 순종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당 식이 아니라 儒敎社會의 전형인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그러나 한가지 유교와 공산당 교리의 사이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점은 共產黨 政綱政策이 儒敎의 基本敎理를 오랫동안 否定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유교에서 가장 중시하는 교리 중의 하나가 修身齊家治國平天下입니다. 즉, 개인이 먼저 자기자신의 수양을 통해 올바르게 정의로운 人間이 되는 修身이 첫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齊家 즉, 家庭을 돌보고 자녀들을 잘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야 治國平天下를 위해 공직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슈미트 수상 : 동감입니다. 제 느낌으로는 중국에 家族中心主義가 回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정에 한 자녀만 갖게 했던 정책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중국인구는 폭발했을 것입니다. 벌써 12億의 인구인데 아이를 생기는 대로 낳는다면 금새 인구는 폭발할 것이고 이웃의 베트남이나 泰國, 말레이시아, 韓國 모두에게 도움이 안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자녀 政策은 유일한 선택이고 현명한 것이었습니다.

유장희 원장 :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지요.

슈미트 수상 : 그랬지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나는 共產主義者가 아니고 더구나 중국공산당원은 더욱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중국공산당이 그 정책을 채택한 방식이 구미에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웃나라때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자녀 原則은 인간이 내다볼 수 있는 수십 년간은 賢明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沿岸地方, 海岸地方에서부터 가족중시 풍토가 다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대약진은 상해에서 광둥에 이르는 해안지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환상적인 經濟的 發展에 內陸地方이 同參할 수 있도록 중국 중앙정부가 해안지방에서 내륙에 이르는 운송하부구조, 통신하부구조 등과 같은 社會間接施設을 얼마나 신속하게 구축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유장희 원장 : 중국정부가 그건 사회간접투자에 예산의 상당부분을 할애할 수 있으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슈미트 수상 : 당분간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을 것이고요.

유장희 원장 : 그럴 것입니다. 國際問題나 財政赤字때문에 중국이 사회간접시설을 개선하는 데는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中國의 海岸地方에서부터 가족중시의 현상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은 반가운 소식이군요.

슈미트 수상 :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요.

유장희 원장 : 만약 그렇다면 조만간 중국의 각 家庭들은 個人財產權을 향유하기를 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실제적 가치는 그야말로 얼마만큼이나 經濟的 自律性을 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렇게 個人財產權이 허용될 경우, 조만간 국가 전체의 價値體系를 損傷시키게(undermine) 되어 중국정부는 딜렘마에 빠져버릴 것입니다.

슈미트 수상 : 저는 “損傷시킨다”는 단어는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산주의 이념은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北京政府를 무너뜨려야 할 필요성도 없다

고 봅니다. 이념문제는 벌써 한 옆으로 제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장희 원장 : 그렇다면 공산당이라는 이름을 바꾸게 되겠지요.

슈미트 수상 : 네, 그래요. 하지만 당의 이름을 바꾸느냐 마느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狀況論理에 의해 政策基調가 바뀌었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옛날이름 그대로인 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최근 중국의 開發戰略을 보면 韓國의 개발초기단계와 많이 類似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수상께서는 經濟開發計劃과 그 성공적 추진에 있어서 중앙 정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성장을 전 공한 상당수의 經濟學者들은 국민들의 열망, 근로태도, 국민들의 教育水準과 知的水準 등의 요인들이 적어도 정부의 역할만큼은 기여를 했다고 분석하는데, 수상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슈미트 수상 :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政府가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政府의 任務가 어느 산업이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고용해야 하는지를 계획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巨視經濟의 全般的 管理에 정책의 중점이 두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獨逸에서 지난 50년 동안 행했던 巨視經濟管理政策의 主眼點은 소수의 거대기업군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獨占을 엄격히 規制했고 카르텔을 대단히 엄하게 규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러시아조차도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의 大企業이 경쟁상대인 小企業을 사들임으로써 獨占企業이 되거나 獨占的 與件을 構築하는 가능성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獨占과 카르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규모의 기업과 가족기업에게 公正한 營業機會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反獨占政策

이야말로 건전한 정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韓國의 世界化 戰略】

유장희 원장 : 예, 잘 알았습니다. 최근 우리정부는 世界化 戰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화란 한국식 용어입니다만, 영어로 가장 가까운 용어는 글로벌리제이션(Globalisation)일 것입니다.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政治, 社會, 文化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이지요. 세계화는 우선 여러 분야에서 가능한 한 속히 韓國이 世界의 主導的인 國家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民主化를 完成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수상 : 조금 전에 일본 경제정책의 집행에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일본의 관료제도에 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選舉로 選出된 大統領이 정책을 세우는 韓國같은 나라와 선거를 거치지 않은 官僚體制가 정책을 세우는 日本같은 나라 사이에는 분명히 差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韓國의 世界化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한국이 여전히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점은 政府가 民間의 經濟活動에 너무 많이 介入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미시적으로는 개별 산업분야에서, 그리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전체에 관련된 政府規制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그러한 規制를 緩和하는 것 역시 世界化 戰略의 主要課題 중 하나입니다.

슈미트 수상 :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規制를 緩和시킬 必要性이 다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점에서는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韓國에는 두개의 巨大財閥, 아니 네개인가요, 즉 삼성과 현대가 국가경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요? 일본에도 자이바츠라고 불리는 財閥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건전하지 못한 경제구조라는 얘기입니다. 중간정도 규모의 기업이 폭넓게 포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장희 원장 : 中小規模의 企業을 말씀하시는 것이겠지요?

슈미트 수상 : 소매시장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상점도 소홀히 할 수 없지만 中間規模의 製造企業이 보다 重要합니다. 韓國과 日本, 양국을 놓고 볼 때, 두 나라 모두 과도한 정부규제, 비대한 재벌의 존재 그리고 중간규모 제조기업의 취약성 등의 共通點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장희 원장 :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경우 첫 눈에는 두 나라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인상을 가질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海外企業, 海外競爭者에 대한 市場開放같은 측면을 살펴보면, 한국사회나 한국기업의 適應體系가 일본보다 개방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상황이 일본의 상황보다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수상 :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유장희 원장 : 우선,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貿易收支赤字 문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韓國이 과거에는 미국을 포함한 主要先進國들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바 있으나, 최근 시행되고 있는 市場開放政策을 통해 이들과의 사이에서도 小規模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재 全體的으로는 收支均衡狀態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된 표

현이 아닐까요? 아 물론 한국은 收支均衡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별기업이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는 노력의 총화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해외기업과의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全世界로부터 자동차나 부품 등의 구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지균형을 위한 적응노력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個別企業의 主導로 이루어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슈미트 수상 : 제가 보기에는 일본이나 美國, 혹은 EC 같은 개별 교역대상국(지역)과의 수지균형을 검토하는 것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수지균형인데, 유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全體 國際收支가 거의 均衡상태에 있다면, 이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가지의 취약점이 있다면,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日本, 유럽, 또는 美國 등 선진국가들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학자라면 인플레이션 문제부터 다룰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그렇지만, 인플레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5.5%~6%선으로 顯著히 下落하였고, 금년의 경우에만 다소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韓國經濟에서 인플레의 압력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수준까지 安定化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슈미트 수상 : 5%에서 6%의 인플레도 역시 너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장희 원장 : 다소 높기는 하지요. 하지만 市場開放과 海外로부터의 競爭促進을 근간으로 하는 世界化 戰略을 계속 추진함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슈미트 수상 : 失業率은 어떻습니까?

유장희 원장 : 네, 완전고용에 가깝습니다. 2.2% 정도입니다.

슈미트 수상 : 2.2%라면 완전고용이겠군요. 그러면 좀더 엄격한 消費抑制政策을 펼 수가 있겠습니까.

【韓國經濟의 將來와 教育의 重要性】

유장희 원장 : 슈미트 首相님, 이제 韓國經濟의 將來에 관해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어떨까요? 수상께서는 지난 50년간의 韓國經濟成長을 지켜보셨는데 앞으로 5년, 10년, 15년후에는 韓國이 世界經濟에서 어떤 位置를 차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슈미트 수상 : 10年 以內에 韓國은 先進産業國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꼭 엄청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經濟協力開發機構(OECD)의 회원국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OECD 會員國이 된다는 것은 國家位相을 높일 수 있고, 또 막대한 양의 情報와 知識을 선진국들과 共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技術發展이나 經濟發展만을 염두에 둔다면 굳이 OECD 회원국이 될 필요도 없고 또 세계은행(World Bank)의 역할도 더이상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OECD의 회원국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세계의 어느 나라든지 韓國이 先進産業國의 일원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臺灣과 싱가포르도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유장희 원장 : 國家의 位相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教育프로그램도 역시 대단히 중

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韓國社會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한국에는 南北統一의 可能性에 대하여,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한국이 國際社會에서 어떤 位置를 차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統一의 必要性에 대해서조차도 新舊世代間에 커다란 認識의 差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일부는 한민족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필요성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슈미트 수상 : 그렇습니다. 敎育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며, 유원장께서 지적하신 대로 敎育에 力點을 두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특히 基礎科學研究를 강조하고 싶군요. 한국인들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世界의 科學共同體에서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두루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敎育 뿐만 아니라 自然科學과 工學 및 人文科學 분야에서의 고차원적 연구에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한국의 엘리트들이 유럽과 미국의 文化的 背景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 눈에는 여러분들의 中國人과 日本人에 관한 이해는 충분하지만 유럽人과 美國人에 관해서는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장희 원장 : 그 문제는 앞으로 韓國人들이 노력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슈미트 수상 :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韓國의 企業들은 최근 들어 점점 북미와 유럽기업에게 중요한 挑戰者이자 競爭者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그 경쟁관계가 정치적으로 비화되어 政治的 緊張으로 惡化되는 것을 豫防하기 위해서도 美國과 유럽의 文化的 背景을 좀 더 잘 理解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국가전체의 敎育프로그램의 必要性에 대하여 다시 한번 高見을 부

탁드립니다. 젊은 세대들이 국가의 비전과 정책 우선순위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獨逸의 경우에 特別프로그램을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까?

슈미트 수상: 독일의 경우에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런 필요성도 없어 보이는군요. 독일의 경우에는 自然科學이나 과학적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는 現代技術 등의 중요성에 관해 일반적인 이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特別教育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실 독일의 일부 젊은이들은 현대공학을 두려워하는 편인데, 그 중 일부는 原子爐 등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젊은이들은 現代 生物工學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젊은 세대의 심리적 결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젊은 세대라고 지칭하는 경우, 1968년의 학생운동시대에 知的發達期를 거친 40代, 50代도 포함됩니다. 그것이 현대 독일이 안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大學校와 學校의 몫이며 국회나 정당에 몸담고 있는 政治人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일연방공화국은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이며, 교육은 中央政府의 관할 하에 있지 않고 16개 주정부에 맡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分業體制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중앙정부가 모든 대학을 통제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美國이나 英國처럼 私立大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애석합니다. 거의 99%의 獨逸大學이 州立大學이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며, 거의 동일한 교육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각 대학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접근방법을 택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多樣性의 缺如야 말로 獨逸社會가 현재 안고 있는 脆弱點이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해결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자신은 中央政府가 이미 개입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介入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反對하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습니다.

유장희 원장 : 대학의 集中化 혹은 州立大學體制의 成立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슈미트 수상 : 獨逸의 대학체제는 16개의 주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주립대학체제이며, 중앙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중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18世紀와 19世紀 독일교육의 역사적 결과입니다. 중세기에 이미 독일 땅에는 세계 최초의 대학 가운데 하나가 설립되었는데 그것은 지방의 봉건영주나 왕에 의해 설립되어 地方政府가 항상 財政을 負擔했습니다. 이는 15世紀初 아니 14世紀末에 독일 최초의 대학이 설립된 이래 이어져 내려오는 慣行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하에서도 教育政策을 절대 집중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육체제는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도 벗어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中央政府가 독일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듯이 대학에 대해서도 전혀 간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聯邦議會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자, 이것은 이제부터 법률이 되며 법령집에 등재될 것이오'라고 해도 聯邦州들이 함께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는 것입니다.

【獨逸型 反獨占政策의 示唆點】

유장희 원장 : 조금 전에 거시경제관리정책의 일환으로서 독일정부의 중점과제가 獨占規制에 두어졌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독일이 보유하고 있는 단호한 獨占規制法의 主要內容은 무엇인지요? 아울러 대기업의 과욕을 차단하기 위해 獨逸政府가 실시했던 競爭政策에 관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슈미트 수상 : 그러지요. 독일에는 독점규제를 주목적으로 하는 여러가지의 法規

程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수십년 전에 카르텔 형성을 감독하는 소위 「연방카르텔廳(Bundeskartellamt)」이 설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어떤 자동차 생산회사가 다른 자동차 생산회사를 吸收合併하려면 그곳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 그런 特別機構였습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품질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여 전보다 더 많은 자동차를 판매할 능력이 있는 한 쓰러질 염려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競爭에서 패배한 기업이 도산한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바람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가 멸정한 회사를 합병하려 한다면 그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법이 항상 엄격하게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전후 집권한 모든 정부가 꾸준히 밀어 붙였습니다. 戰後 獨逸에는 지금까지 6名の 首相이 집권했는데, 그 중 2명은 저의 경우와 같이 社民黨(SPD) 출신이고 나머지 4명은 基民黨(CDU), 즉 보수당에서 배출되었습니다. 현재 집권중인 헬무트 콜 수상도 보수당 출신이지요.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집권했던 여섯 정부가 모두 - 시장경제의 단점을 방대한 사회보장체제로 보완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하는 獨逸의 獨特한 經濟體制인 - 「社會的 市場經濟(social market economy)」의 基本原則을 굳건히 堅持해 왔기 때문에 이러한 競爭政策的 一貫性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독일정부는 社會保障이라는 과업이 대기업의 영역이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았고, 더구나 개인에게 떠맡기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는 바로 독일이 했던 방식을 통해 복지국가의 표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企業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카르텔規制法과 獨占規制法이 훌륭하게 운용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 참 좋은 정책이고 바람직한 접근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슈미트 수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도 거대기업이 있습니다.

유장희 원장 : 거대기업을 한국말로 財閥이라 합시다만 이미 존재하던 財閥을 解體하는 政策도 실시되었는지요?

슈미트 수상 :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대기업을 해체하기는 실로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 법제화를 통해 기업들의 거대화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中間規模의 企業이 성장할 수 있도록 公正한 機會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장희 원장 :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한국정부가 世界化프로그램에서 意圖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대기업을 해체하는 것이 실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슈미트 수상 : 그렇습니다. 거대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 그것을 해체하는 작업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장희 원장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韓國政府는 재벌들이 현재 규모이상으로 더 커지지 못하도록 유인하고 있습니다.

【獨逸 統一政策의 敎訓】

유장희 원장 : 화제를 바꾸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貴下께서는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獨逸聯邦首相을 역임하시었고, 또 80년대말에 東西獨이 統一될 당시에 正當을 초월한 政策的 助言者로서 활약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북한 통일을 염두에 둘 경우, 獨逸이 실시했던 경제분야의 統一政策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슈미트 수상 : 한국이 향후 (통일후) 북한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국가소유의 공장이나 기업, 특히 실제로는 국가나 당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 및 관련토지를 民營化하고 개인에게 불하해야 할 경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獨逸의 경우 동독지역의 국가소유기업을 民營化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競賣에 붙였는데, 이는 충분한 자금이 없었던 동독인들은 아무도 그것을 落札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過誤임이 드러났던 바 있습니다. 거의 모든 공장들이 경매를 통해서 서독인들 그리고 극히 적은 규모이기는 했지만 프랑스人, 日本人들에게 매각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기업들도 이 민영화 작업에 참여했을 텐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유장희 원장 :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슈미트 수상 :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에 있어서 외국인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낯선 일이 아닙니다만, 어떤 동독인의 경우도 충분한 자금동원능력이 없어 기업을 낙찰받을 수 없었다는 것은 獨逸 統一政策의 失策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統一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만한 또 다른 실책도 범했습니다. 지금의 통일정부 즉, 당시의 西獨政府는 동독인의 勞動生産性이 서독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년 내에 그들이 서독인과 동등한 수준의 실질임금을 받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한편으로는 名目賃金 및 實質賃金の 急激한 上昇을 초래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품의 품질과 비교할 때 생산비용에서 賃金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임금상승에 따라 제품의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그 상품의 판로가 막히게 되어 상당수의 勞動者가 解雇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동독지역에는 현재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실업자가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싹트게 했던 것입니다. 특히, 東獨地

域에서 실망한 사람들의 政治的 不滿은 최근의 주단위 선거에서 동독공산당의 후신인 어느 정당에 다시 표를 던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經濟的 統一은 매우 복잡미묘한 과제이므로 韓國의 경우에도 통일의 첫단계에서 급격한 경제통합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深思熟考해야 할 것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獨逸 統一政策의 세번째 실책은 구동독의 통화와 서독의 마르크화 사이의 換率 策定에 있어서 東獨通貨를 실질적으로 大幅 平價切上시키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동독인들에게 유리했었지만, 다음 단계에서 그 때문에 동독지역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어 失業率이 急增하자, 환율결정이 바로 실책임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동독의 실업률은 서독의 실업률보다 적어도 2배 이상이나 되며, 사실 1990年보다 일자리가 40~50% 가량 줄어 들었습니다. 한편, 동서독 人口와 南北韓 人口比率을 대비해 보면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동서독의 인구비율은 1:4였기 때문에 동독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재원마련에 있어서 1명의 동독인을 위해 4명의 서독인이 재정적으로 절약해야 했다면, 南北韓의 경우 인구비율이 2:1이므로 오직 2명의 남한사람이 1명의 북한사람에 대한 經濟的 支援을 떠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그건 훨씬 힘들겠지요.

슈미트 수상 : 그럼요. 南韓사람들이 서독인들보다 더 절약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의 다음 단계에서 대단히 인기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의 첫 단계에는 모든 국민들이 열광하겠지만 그 다음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세금은 올랐다고 하고 봉급은 예전처럼 오르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면 실망만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저로서는 한국의 경우 -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수많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했던 獨逸의 경우를 되새기면서 -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段階的으로 政策을 執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장희 원장 : 슈미트 수상님, 정말로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한국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獨逸의 경우에는 동독과의 접근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和解·協力政策이 실시된 바 있고 이는 東西獨間의 對話通路 유지 및 交流擴大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산가족 및 친지들의 相互訪問도 마찬가지로 가능했구요. 이처럼 훌륭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통일은 수상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야기할 수 밖에 없었군요.

슈미트 수상 : 네, 그랬습니다.

유장희 원장 : 바로 그랬지요. 그런데 저희 韓國의 경우에는 대화의 통로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상호방문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게다가 이를 위한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슈미트 수상 :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전에는 방문가능성이 많지는 않았습시다. 거의 모든 것이 통일 후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겠지요. 통일전의 東獨國民들은 대부분 철저한 統制에 의해 억눌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 상황은 지금의 북한주민들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던 것이 과거 공산세계의 종주국이었던 蘇聯의 崩壞와 이에 기초한 東歐圈의 自由化 물결에 따라 통제의 사슬이 해체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지금 이 시간, 모스크바나 북경의 어느 누구도 평양의 공산독재를 유지하는데 진정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들은 이제 북한을 더이상 지원해 주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財政支援은 물론이고 식량이나 연료지원조차도 매우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년전, 10년전에 비해 현재 평양政權의 전망, 특히 經濟的 展望은 매우 어둡기만 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저는 평양政權이 바로 이러한 경제적 이유때문에 崩壞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 소요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내부의 갈등에 의해서든지 북한의 현 정권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조만간에 무너질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슈미트 수상 : 조만간 그러리라 예상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76세입니다만 남북한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 문호가 열리고 統一의 過程이 開始될 것으로 깊이 확신합니다.

【韓半島 統一로 가는 길】

유장희 원장 : 統一의 완성이 아니라 過程을 말씀하시는군요. 協商에 임할 韓國政府에게 첫단계를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는 助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슈미트 수상 : 우선 중요한 것은 몇 번씩 거부되더라도 한국정부가 南北韓 당사자간의 合意導出 또는 條約締結을 먼저 提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거부되면 또다시 제의하는 과정을 반복해야지요. 그리고 평양 당국과의 직접적인 접촉과는 별도로 北京의 中國政府에 대해서도 南韓의 腹案에 관하여 說明하는 작업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장희 원장 :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북경의 이해에도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는군요.

슈미트 수상 : 예, 그럼요. 한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보건대, 현재의 韓·中間 政治關係는 최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장희 원장 : 최적 상태는 아니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實質的으로 改善되고 있는 중입니다.

슈미트 수상 : 저에게도 개선의 기미는 관찰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중국사람들은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고 가슴속에 담아 키우는 성향이 있습니다. 부연하자면, 그들의 가슴 한쪽에는 한국에 대해, 그리고 더 강한 정도로 일본에 대해서 文化的 優越感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속에는 이웃의 두나라에 대한 經濟的인 측면의 劣等感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인들은 複合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편, 일본인들은 중국에 대해 文化적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中國文化를 한반도를 통해 물려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려 합니다. 즉 歷史的 眞實을 否定하려는 것입니다만, 진실은 진실로 남는 것이지요.

유장희 원장 : 역사적 진실임에 틀림없지요.

슈미트 수상 :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콤플렉스를 안고 있는 두 이웃과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難攻不落의 북한독재를 타파하는데 있어 中國의 影響力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日本의 寄與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슈미트 수상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장희 원장 : 저는 北韓의 經濟狀況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1992년 두만강개발계획(TRADP)의 일환으로 파견된 공식방문단의 단장으로서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을 포함하여 몇 군데 지방도시를 방문할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제가 놀란 점은 北韓住民들이 외부 國際社會에서의 여건변화에 대해서는 조금도 모른 채 자신의 현재 생활수준이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북한주민들은 아무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슈미트 수상 : 그들은 오랫동안 外部世界와 斷切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北韓住民들은 일본의 한반도통치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여러 世代에 걸쳐 獨裁治下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북한주민들은 자신들의 삶과 서울이나 오사카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방법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정권에 의해 철저히 차단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입시키느냐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생각에는 텔레비전을 이용하기 보다는 라디오가 오히려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南北韓間의 合作企業을 통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중국기업의 경우, 북한의 수준에서 볼 때 매우 매력적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유장희 원장 :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조금 전에 제가 드렸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統一前의 東西獨 國民들은 書信往來 같은 것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었고 마침내는 相互訪問도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슈미트 수상 :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유장희 원장 : 그랬던가요? 그래도 서신왕래는 부분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던가요?

슈미트 수상 : 제가 알기에는 주요 수단이 라디오였습니다.

유장희 원장 : 西獨의 라디오와 TV를 동독지역에서도 청취할 수 있었지요.

슈미트 수상 : TV방송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東 베를린의 공산정권이 동독주민의 西獨TV 수신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실패했지요. 그래서 동독지역에서 서독의 TV방송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中心 役割은 라디오매체가 담당하였습니다.

유장희 원장 : 그렇군요. 그러나 北韓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라디오 방송청취도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제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短波라디오를 가지고 가서 남한방송을 수신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모든 주파수가 전파간섭으로 차단되어 있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지금 나라 바깥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소” 라고 알려주기 위해 북한으로 뚫고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 문제가 南北韓 統一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걸림돌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슈미트 수상 : 그렇지만 저는 成功할 것으로 믿습니다.

유장희 원장 : 그러기 위해서는 不斷히 努力해야 하겠지요.

슈미트 수상 : 북한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공산독재로 남아있는 상황이

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南韓의 統一努力이 결실을 거둘 것입니다. 모든 共產獨裁體制가 崩壞되었다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쿠바의 카스트로政權이 시들어 쓰러져 가듯이 평양政權도 시들어 崩壞할 것이 분명합니다.

【統一을 위한 準備】

유장희 원장 : 괜찮으시다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지금 統一을 準備하는 過程에 있습니다. 政府次元에서는 국토통일원이라는 통일전담부서가 있어 그곳에서 핵문제로부터 北韓住民을 돕기 위한 인도적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모든 대북한 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民間次元에서도 북한지역에 이산가족을 가진 분들을 중심으로 基金을 積立하여 궁극적으로 北韓經濟의 回復에 쓰이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政府나 民間次元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슈미트 수상 : 지금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상황도 변할 것이기 때문에 統一을 위한 처방도 변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統一問題에 관해 여러분이 어떠한 接近方法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수차례의 公開討論會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意見을 收斂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이 국익과 부합하는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다른 의견, 다른 접근방법에 대해서도 청취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高位層에서만 아니라 한국의 經濟學者, 政治學者, 政治人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동일한 주제를 놓고 꾸준히 지속되는 토론이 행해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여기에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外部專門家도 함께 참여할 경우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맺는 말씀】

유장희 원장 : 슈미트 수상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상님과 오늘의 대담에서 나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結論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韓半島의 統一은 향후 韓國의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이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변국가 특히 美·日·中·러시아 등 周邊 4強의 協力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둘째, 이와 동시에 韓國은 한편으로는 북한을 돕기 위해 자신의 經濟力을 活用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주민들이 바깥 세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北韓當局 뿐만 아니라 北韓住民들과도 對話通路를 構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이 진정한 민족의 최우선과제임을 주지시키기 위한 教育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韓國經濟의 급속한 發展과 더불어 한국이 조만간 先進產業國家의 대열에 진입할 것이므로 韓國은 國際社會에서 이러한 位相提高에 걸맞는 커다란 責任을 떠맡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장차 OECD의 會員國이 되어 主要 國際問題解決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슈미트 수상 : 유장희 원장님, 원장께서 요약하신 것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였으면 합니다. 이제는 韓國人들이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시기는 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국분들은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원장님과 教育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눈 바 있지만, 音樂과 演劇, 文學을 부담없이 즐길 수 있기 위해서도 教育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신이 인간을 오직 일하라고만 창조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들이 자신의 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장희 원장 : 슈미트 수상님,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 貴下의 忠告와 助言은 韓國의 發展프로그램과 統一政策을 充實化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없이 소중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슈미트 수상 : 감사합니다.

유장희 원장 :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光復 50周年을 맞은 韓國國民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슈미트 수상 : 저는 韓國國民 여러분들이 지난 半世紀동안 성취할 수 있었던 유례없이 훌륭한 成功的 發展에 대해 敬意를 표하고자 합니다. 한국국민 여러분들이 다가오는 수십년은 물론 다음 세기 동안에도 항상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시기를 진심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유장희 원장 :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한 헬무트 슈미트 獨逸 前首相과의 對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Contents

Introduction	43
International Dimension of Korea's Unification	44
International Role of Japan	46
China's Reform and its Prospect	51
Korea's Segyehwa Program	55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58
Implications of German Anti-Trust Policy	61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63
Road to the Reunified Korea	67
Preparing for Unification	70
Concluding Remarks	71



【Introduction】

Yoo : Chancellor Schmidt, it's very nice to meet you here. I appreciate very much your accepting the invitation to this interview program. Korea is now celebrating the 50th anniversary of its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And as you know, Korea is emerging as one of the biggest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It is ranked 11th in the world in terms of GDP. In terms of trade volume, it is ranked 12th among the major economic leaders in the world. So, looking back at the record of Korea's recent history, we know it is very important at this moment to configurate programs for the next fifty years and for another 100 years of Korea's development plans. Since you have vast experiences in politics, international economics, and also many social and cultural aspects of the world, I think it is a very opportune time for both of us to talk about Korea's future, its unification programs, and its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I really appreciate your participating in this program one more time. This program is sponsored by KBS and KIEP. Thank you very much.

Schmidt :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Dr. Yoo. I think to look ahead over fifty years is asking a little bit too much. The first time I visited Korea was in the late 50s, more than 35 years ago. And nobody in 1959 would have anticipated the enormous economic success which you have achieved over the last 35 years. Nobody would have looked that far ahead. So my experience is that one should have long-term goals before one's eyes, but one's policies should concentrate more or less on the next 4 or 5 years, at the most, 8 to 10. Let me also mention that I have friends in your country. We meet on a regular basis and exchange views on several topics of common interest. And they are also the people from

whom I learned most about the present situation of your country and about your country's future. It seems to me that the future of Korea, generally speaking, has to be seen in the Broader Northeast Asian context. One is the future of China, and one is the future of Japan: these are two very important factors as regards the future of Korea. Also, to some degree, Russia will play a role. Russia is still a giant. China already is a giant, althoug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n't understand that as of yet, and Japan is a potential giant.

Yoo : Economically speaking?

Schmidt : Financially speaking. It hasn't as of yet made foreign political use of its financial power. But it could. And then, it will be a world power. Well, having said this, I am ready to answer your questions.

[International Dimension of Korea's Unification]

Yoo : So, you were just beginning to mention about major regional powers like China and Japan. Potentially Russia as well. But looking backwards a little bit, Korea's history indicated that Korea has been benefitted by these countries at one time, but most of the time, these countries seemed to have shown very strong interests in the Korean peninsula. So, these three big regional powers, plus the United States, should play very important roles in the future, particularly in terms of Korea's reunification.

Schmidt : The three countries which you mention in the first place, China, Japan and Russia, for quite a period of time, have shown two great interests in Korea. The Japanese conquered Korea, and then later on, one of the outcomes of World War II was the division of Korea. And then, Russia and China have assisted North Korea in maintaining the very strict border and the enmity. All this leads to a situation where, at present, as you correctly have mentione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have to play a balancing role in that part of the world. To quote a remark from my Singaporean friend, Lee Kwanyu,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presently is the least suspected power in the Far East. And this relates to the American balancing potential.

Yoo : On the part of U.S. roles, Mr. Lee's comment may be right, as far as other big powers are concerned. We could check on their attitude toward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ll, as you recalled, the Chinese army had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one time, and the Soviet Union, at one time, was one of the big powers behind the scene of the Korean War. Japan is also very nervous about the growing powers in the North, including China, and perhaps Russia in the future. So they, all these countries, would like to see the Korean peninsula as a buffer-zone in this power struggle in the Far Eastern Asian region. If that is the case, we are not quite sure whether these neighboring big powers would like to see the Korean peninsula being unified or the same state.

Schmidt : Well, if one puts oneself into the shoes of the Chinese leaders, it seems to me that the Chinese, if they think ahead in the long run, would not be opposed to the Korean reunification. China, being in population twenty times as large as Korea, would not really oppose Korean unification, except under the case that

this would happen under Japanese sovereignty. But this case of course will not happen. The Russians, I think, would find it, in the long run, in their interest to have a strong unified Korea. And this may be the case because of their consideration of the future world power role of China. The Japanese may be the ones who are least interested in Korean 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many Japanese do today feel that they owe something to the Korean nation. They, just a couple of days ago, had a bitter debate all over Japan and in the Japanese parliament, over whether they should offer apologies to the Koreans. Other people of Japan oppose this. But for the most part, they want to feel that there were enormous crimes by Japanese individual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gainst Korean people, particularly in regards to the so-called "comfort women." I have a feeling that within the next ten or fifteen years, the Japanese will come around and revise their present resolved attitude. But still, Japan will industrially look at Korea as a great competitor. And you are a competitor.

[International Role of Japan]

Yoo : Right. But as you just brought up, the Japanese attitude to the past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German attitude right after the War. Germany made it absolutely clear that the second World War was caused by themselves, and Germany went out courageously and made apologies to the concerned parties.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why the Japanese still are holding their apologies to neighboring countries?

Schmidt : I have to mention three things in context with your question. First, it

was the French who stretched out hands for reconciliation with Germany; it was not Germany. It was the French who invited the Germans for cooperation. And we took that. Jointly, but in the main and in the beginning, certainly under French leadership, did we develop the concept of a European Economic Community. Six states at the beginning, France, Germany and Italy, and the Belelux countries, Belgium, the Netherlands, and Luxembourg, lay on this.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was enlarged. For instance, Britain became a member. We enlarged from six to nine, and then to twelve. Now, it's fifteen countries, and other would-be members will join rather shortly. Second, it was on German initiative in the 1970s under the banner of "Ostpolitik" that we tried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between West Germany on the one hand, and the Soviet Union, Poland, Czechoslovakia, which in the mean time broke into two pieces, and East Germany and other countries under communist rule on the other hand. The further point that I would like to answer is the fact that the Japanese mentality and the German mentality are very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Japanese mentality has do wit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apan, having been closed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until Meiji. It's an insular mentality, whereas Germany, located in the middle of a very small continent, Europe, does have nine direct neighbors. Nine neighbors whose territories are immediately at our borders. Japan has no close neighbors. This, in a way, may be the beginning of the explanation for the different psychologies that Japanese still are insular in many ways. Not totally different from the British, who also live on an island, but very much different from the Germans or Austrians or Dutch or French.

Yoo : Does it have something to do with oriental culture or some sort of

racial kind of characteristics?

Schmidt : No, I would not think so. It does not have much to do with cultural heritage of the East Asian nations. For instance, I don't see any parallel between the Japanese and Chinese in this respect. Maybe to some degree with the Koreans, I am not sure, but they differ very much from Chinese. Japanese have an insular mentality, despite the opening up of Japan under the Meiji Emperor, which was now 125 years ago.

Yoo : Well, as we are talking about Japan's insular mentality, we are very much concerned about Japan's economic policies. Now, it's subject to the criticism of many other countries. Japan is making trade surplus with practically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But making trade surplus accumulate worries, and the country itself is very vulnerable to criticism from all over the world. Even in such criticisms, Japan would not like to open up their market and try to reform the distribution.

Schmidt : I think you should not be too concerned about the economic policies of Japan. Japan is the greatest economic nation in the world, providing capital to many many others. For instance, the American finance ministry could not finance this budget without Japanese savings.

Yoo : Yes, there is a theory as well.

Schmidt : No, that's not a theory, that's the fact. The Germans' finance ministry today could not finance its budget without Japanese capital exports. You shouldn't

be too concerned about Japanese economic policies. Economic policies of Japan are, in the main, denying their own people a higher standard of living. They could have much better housing, for instance, if they concentrate on investment at home. They are living in rabbit houses, as some people say. And their infrastructure, their social security structure is not sufficient. They could easily finance a much better security structure if they forgo the greater part of their export surpluses and their capital export surpluses as well. If I were a Korean, I would be more concerned about the Japanese psychological attitude vis-a-vis the Korean nation. And maybe that the political elite in Korea, the political elite in Seoul, should consider whether they stretch out a hand for reconciliation as the French did vis-a-vis Germany decades ago. Otherwise, you will put the Japanese into a corner, out of which will arise great difficulties in developing a more neighborly attitude towards Korea.

Yoo : Right. As far as Korean attitude is concerned, I think it's pretty much open-minded and ready to go ahead to reconciliation with Japan. But the condition is that the first things come out first. That is, Japan is supposed to acknowledge their past mistake, and then Japan is supposed to make it clear in the first place that this tragic history is not going to repeat in this region again. And Japan is supposed to make it official that the mistake they made during World War II and the Pacific War should not be replicated.

Schmidt : We do agree about the shortcomings of the Japanese. But I will not buy your phrase "first things come first." When the French stretched out their hand, this was done in 1950, just 5 years after the War. Immediately after the creation of the German Federal Republic, they did it. We didn't have a chance

even to offer our apologies for what crimes had been committed by the German on the French. They did it first. And on behalf of their invitation, the German developed an attitude of deploring what we had been doing. It's my chance to give you advice. Not to the Japanese, but to Korea. If I was in your spot, I really would consider to do away with this idea of "first things first." Maybe you could even manage a great advantage for yourselves if you stretch out your hand. On the other hand, as long as this hidden tensions between Seoul and Tokyo does persist, does continue as long as this has been continuing, the chances for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nation will be to some degree impeded.

Yoo : Well, that is one of our concerns as well. But as far as the economic front is concerned, things are getting better between Japan and Korea. Particularly in recent years, Japanese businesses seem to show a very strong interest in collaborating with Korean businesses, partly because of Yen appreciation, partly because of the Japanese restructuring policies. Some of the less competitive industries should be transferred to other countries, and Korea is considered one of the best candidates for places for Japanese firms to be transferred to.

Schmidt :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in Tokyo, it is not the politicians who define economic policies. It's not the politicians and the Japanese parliament who define financial policies. In fact, it is the Japanese bureaucracies in command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the MITI, and to a small degree also the foreign office. And the politicians don't really interfere with these economic policies. I am not so sure who is making economic policies in your capital. I have a feeling that in Seoul, it is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s, one after the other. But I may be mistaken. Let us go back to one of your earlier remarks about Far Eastern

culture. There are three great nations in the Far East. If I look onto your part of the world through European eyes, there are the Chinese, Japanese and Koreans. And it seems to me that cultural tradition is mainly due to Confucianism, that all three nations tend to believe in the legitimacy and to believe in the adequateness of authority from higher above. Confucianism doesn't make it easy for democracy. Neither in China, nor in your country, nor in Japan. In that regard, Japan may be a little more advanced than the other two. But as I said earlier, it is bureaucracy that governs the economy. I wonder whether the present day Communist Party in China is more communist or more confucianist.

[China's Reform and its Prospect]

Yoo : Well, if China had taken up Confucianism in the past, then the system would not have been that way, with one party dominating the whole thing. That is,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nd the secretaries of the party are dictating practically all aspects of Chinese society.

Schmidt : That is right. I have known Mao Tsetung, and I have known Deng Shaoping, for 20 years now. And I think it is an amazing phenomena that Deng Shaoping in his late 30s was able to bring about an enormous evolution of economic thinking in his communist party. And this is due to the personal authority of the man, and personal authority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reponderance of Chinese people to look to the man on the top. It's not a typical communist party. It's typical for Confucianist societies.

Yoo : But the one thing absolutely different from Confucianism is that the basic underfooting of Confucianism has been long denied by the Communist Party policies. For example, one of the most important underfootings of Confucianism is that you have to be the right person first. You, yourself, should become the right person, the just person. And secondly, you should be able to raise your family, you should be able to raise your children successfully, and then afterwards, you should be able to run for some high ranking positions.

Schmidt : I agree. I have the feeling the family system is coming up again. It looks like the one child policy is correct. Otherwise, the population of China will explode. It's already 1.2 billion people. And if they would go back to having as many sons as they can make, they would quickly explode population-wise, and this would not be beneficial to other neighbors-not to Vietnam, not to Thailand, not to Malaysia, not to Korea either. So the one child policy is sound. It's sensible.

Yoo : Wasn't it in their own interest?

Schmidt : Oh yes, you need not convince me. I am not a communist. I am not the Chinese Communist, particularly. No, the means by which they have instrumented this policy, in my view, are distasteful. But the principle of one child per family, over a foreseeable number of decades, seems to be sensible. But I have the feeling that starting in the maritime provinces, the seaport provinces, the family principle is coming up again as very important. The great trial for China is whether the government in Beijing can manage to quickly build infrastructure, particularly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rom

the seaboard provinces into the inland, in order to let the inland participate in the fantastic economic upswing from intercoastal areas, from Shanghai to Kwangtung.

Yoo : I think it will take a long time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be able to use a good part of their national budget for building up these infrastructures that could help the inland areas.

Schmidt : In the mean time, they will brace for fantastic inflation.

Yoo : That's right. Because of international problems and government deficit problems, I think it will take a long time to upgrade infrastructure. Also, I am very much encouraged when you say that the societies along the eastern seashore area seem to be taking up the family values.

Schmidt : Obviously, yes.

Yoo : If that is the case, then sooner or later, these family units would want to enjoy private property rights. Because the family value really depends upon how much economic autonomy they can enjoy. So if private property rights are allowed in society, then that will undermine, sooner or later, the value system of communist China.

Schmidt : I wouldn't use the word "undermine." The Chinese people don't necessarily need to undermine their government in Beijing. Their ideology has already been put aside.

Yoo : So, in which case, the party changes its name.

Schmidt : Oh, yes, it may change its name or may not. It doesn't really matter. It is already the situation where they changed their policies.

Yoo : As we look at the Chinese development strategies in recent years, I think that does compare very well with Korea's early stage of development. Well, Chancellor Schmidt, you seem to have given credit to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in economic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But you see at the same time that there are quite a few economists who are specialized in Korea's economic growth, who are indicating that people's eagerness and work habits, and their educational level or intelligence level must have contributed at least equally to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Korea. How do you feel?

Schmidt : So far, yes. I am not to any degree a believer in economic planning by a government. Certainly not in Europe, and certainly not in Korea either. The government's task is macroeconomic management, not planning which industry has to produce how much or which industry has to employ how many people. One part of macroeconomic management in my country over the last 50 years has been to avoid two or three or four big conglomerates. We had a very strict monopoly control and to some degree, even Russia and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Union's economy also see to it that not one big corporation can buy up their small competitors and thereby become a monopoly, attain a monopolistic situation. To avoid monopoly, to avoid cartels, there need to be given chances to medium-size corporations and family corporations, and I think this is a sound policy.

[Korea's Segyehwa Program]

Yoo : Right. We, our government, recently proposed the so-called Segyehwa movement. Segyehwa is a Korean term. I think the closest English term is globalization. Globalization, not just in the economic area, but the political areas, and social and cultural areas. And the concept of Segyehwa is first that Korea is supposed to aim at becoming one of the leading nations in the world in many aspects, as quickly as possible. In order to do that, well, politically, Korea must complete the democratization process which it is now undergoing, and...

Schmidt : There is a great distinction between a country in which an elected president sets the policy and the Japanese nation where bureaucracy, never elected, sets the policy. In regards to globalization at Korea, it seems to me that you still have to consider whether or not you have too many regulations in Korea, regulating the Korean economy as a whole, regulating branches of industry in particular.

Yoo : That is one of the major areas for Segyehwa.

Schmidt : Yea, you do need deregulation in Korea. In that fact, you are not very much different from the Japanese. They are over-regulated also. And your country has two giant conglomerates, maybe you have four of them. But two, Samsung and Hyundai, are the ones that really make more than one-half of the nation's economy. This doesn't seem to be very healthy. You also have these big conglomerates in Japan: formerly, they were called Chaebol. This is not very healthy. What one should wish to have, should desire to have, is a broad layer

of medium-sized enterprises.

Yoo :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chmidt : Not only small ones, shopkeepers, but also medium-sized enterprises,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South Korea and Japan, you two countries are too highly regulated, have overweight conglomerates and too narrow a layer of medium-sized corporations.

Yoo : But, as you compare the Korean society with the Japanese counterpart, you may have that kind of impression that they are pretty much the same. But the adjustment mechanism in the Korean society and Korean businesses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in Japan. For example, the market opening to foreign companies, foreign competitors: I think Korea's cases are much better than the Japanese case.

Schmidt : Yes, I will agree.

Yoo : You look at the trade deficit with other countries, for example. Korea used to have surplus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Nowadays, throughout these market opening programs, Korea has a little bit of a trade deficit with many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then, overall figures show a balanced situation at the moment. So, Korea doesn't know how to adjust? We are working on it, and on this collection of the adjustments of private industries. They would like to work with the businessmen in other countries, though so far it is too much. They would like to purchase cars and

components from the rest of the world. Yes, adjustment is taking place by initiatives of private firms, and not by the government.

Schmidt : It seems to me that one should not look at the individual trade balances with specific countries, trade balances with Japan or the United States or the European Community. What is important is the overall trade balance. If I'm not mistaken, the overall trade balance in Korea is in equilibrium. And this is very good, very good. If there is one weakness in the Korean economy today, it may be the fact that your rate of inflation is too high. It is higher than in Japan, it's higher than in Europe, and it's higher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if I were an economist, I would now point my finger at the inflation.

Yoo : But they have been contained at 5.5-6% for the last couple of years. So we were worried about rising inflations sometime this year. But so far, the inflation pressures have not built up in Korea. It's pretty much contained.

Schmidt : 5.5-6% inflation is too high.

Yoo : A little too high. Some would like to see the rate go down in the near future throughout the so-called Segyehwa programs. The market opening and competition is coming from outside.

Schmidt : What is your unemployment rate?

Yoo : Pretty much in a full employment situation, which is 2.2%.

Schmidt : 2.2% is the same as zero. By that, you could afford a little stricter moderate policy.

[The Future of the Korean Economy]

Yoo : Now, let us discuss the economic future of South Korea. Having observed the rapid growth of the South Korean economy in the past 50 years, where would you put the South Korean economy in the next, say, five, ten, fifteen years?

Schmidt : Well, let us say within the next ten years, anybody in the world will regard South Korea as a part of the industrialized world. You will become a member of the OECD, which is not necessarily a great advantage. The OECD membership will promote the nation's status and allow the nation to have access to information and knowledge. But otherwise, for your technological development, you don't need the OECD. For your economic development, you need neither the OECD nor the World Bank any longer. But you will become a member of OECD, and anybody will regard you as being a part of the industrialized world. And a little later, the same will happen with Taiwan and Singapore.

Yoo : Well, in order to upgrade our national status, I think the education program is also very important, you know? What do you see in the South Korean society nowadays? There is a big generation gap between the older generations and the younger generations in their perception of the national status in the world community and also their perception of unification,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as well. Some young people do not even understand why it'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Korean nation to become unified.

Schmidt: Yes, education is a necessary element, and you are right to put a stress on that. Also, scientific research. Like the Japanese, you have all the intelligence which a nation needs for playing a role in the scientific community of the world. And you should, I think, put stress not only on education, but secondly also on advanced studies on research - scientific research in the natural sciences, in main technology, and also in the humanities. I have the feeling that it would be good if there was a broadened understanding among the intellectual elites in South Korea, if there wa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Europeans and North Americans. You understand enough about Chinese and Japanese. You do not understand enough as of yet about Europeans and Americans.

Yoo: Those are very challenging dimensions for Koreans.

Schmidt: You are on the way to becoming a major challenger and competitor of North American and European industries. And in order not to let this competition deteriorate politically into political tensions, you need to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cultural background of the Europeans and of the North Americans.

Yoo: Let me borrow some of your wisdom one more time in terms of these nation-wide education programs. Has Germany taken up some special programs in the past to enhance the interest of younger generations in these national

priorities?

Schmidt : I think the answer has to be “no”. But it doesn’t seem to be necessary. In Germany, there is a general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natural sciences, of the importance of modern science, on the importance of modern technology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There is one danger inside Germany. A part of the younger generations are afraid of modern technology. Some of them are too afraid, for instance, of nuclear reactors. Others are too afraid of modern biological technologies. This is one of the shortcomings in the psychology of the younger generations. When I say younger generations, I would include those of 40 and 50 years, whose intellectual development goes back to the 1968. The student generation has to be included in this term “younger generations.” Yes, this is a problem in my country, but it is not for the government to overcome. It is for universities to overcome; it’s for the schools. And it’s for the political parties. As you know, Germany is a country consisting of sixteen states, and education is not in the hands of the central government. It’s in the hands of the sixteen states. I am very much in favor of keeping that situation. I dislike the central government to rule every university. It’s a pity that we do not have private universities like they have in Britain, like they ha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most 99% of our universities are state universities. And they tend to look alike and to do the same, follow the same educational goals. I would like to see a broader variety of different approaches in different universities. This is a present weakness of the German society, but it cannot be overcome by the central government. I would very much oppose the central government interfering even more than they already do.

Yoo : Chancellor Schmidt, could you elaborate a little bit more on the beginning of centralized universities or state university system?

Schmidt : They are not centralized. They are state universities. And they are run by the 16 Länder, not by the federal government. But this is the consequence of the history of education in Germany in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 Even in the Middle Ages, the first universities were founded by the regional kings and by regional princes, and they have been financed by regional authorities at all times. This had been the habit in Germany,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fteenth century even. The first universities in Germany were founded in the beginning of the fifteenth century and in the end of the fourteenth century even, and it has been the habit all that time. We never had centralized educational policies of any impact. But this also leaves to a politically balanced situation. It is not the federal government that calls all the shots in Germany. And Länder together can even veto a federal law, even if the federal parliament passes a bill and says, "This is going to be law, to be written in statute books." The majority of the Länder can say "No, it does not." if they dislike it.

[Implications of German Anti-Trust Policy]

Yoo : You mentioned earlier about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managing the macroeconomy, especially in containing monopolies and cartels. Could you elaborate on the anti-trust law in your country? Could you exemplify some of the competition policies the German government put forth in order to discourage the large corporations?

Schmidt : Yes, there are several laws. One, I would like to mention is the setting up, decades ago, of so-called de-cartelization authority. It's a specific authority whose permission you have to have if you, as an automobile maker, want to buy up another German automobile maker. You are not defeated in making better automobiles and selling more automobiles than yesterday. And if, by competition, somebody is being defeated, that's okay. But if somebody is bought up, this is not okay. And this law has not been strictly obeyed. But it has been carried out by one government after the other. We have seen six Chancellors in Germany since the War, and two of them were Social Democrats like myself. The other four have been Christian Democratic Conservatives, so to speak. The present governor, as is the present Chancellor Kohl, is conservative. But all six governments have followed that mood. And all the same also have all six Chancellors, the six governments, pursued what we call "social market economy", the assistive social stands for market economy completed by a vast network of social security. We have never allowed social security to be just a province for industry, big industry, nor have we left social security to individuals. And that's what I think the Swedes and the Dutch have been providing the mark for what we did in Germany.

Yoo : That's a very good policy and a good approach; what you said about the anti-cartelization that worked beautifully to prevent the large conglomerates from forming cartels.

Schmidt : Nevertheless, we have had conglomerates.

Yoo : But when you have had the conglomerates already - we call them

Chaebol in Korean - how did you dismantle the Chaebol which already existed?

Schmidt : I think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dismantle existing conglomerates. But I would see to it by legislation. I would see to it that they do not become bigger and that medium-sized corporations are given their fair chance to grow.

Yoo : Well, that's exactly w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in mind with the Segyehwa program. It i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split up the currently existing conglomerates.

Schmidt : Yes, I would be careful splitting up existing corporations, as long as they are working.

Yoo : Yes, that's right. But the Korean government is now discouraging the conglomerates from becoming even greater than their current size.

[Lessons from the German Unification]

Yoo : Chancellor Schmidt, let us turn to another topic. You had served as Chancellor of Germany from 1974 to 1982. You have also served as a neutral advisor for issues related to unification since the fall of Berlin Wall. From your experiences, what could Koreans learn from the unification policy of Germany?

Schmidt : The greater problem will come when you have to deal with state-owned factories in North Korea, and state-owned enterprises, and, practically

speaking, state-owned or party-owned agricultural entities. We made great mistakes in Germany in regards to privatization of the state-owned corporations of East Germany. We, so to speak, auctioned them away on the market, which led to a situation where nobody in East Germany had capital enough to buy a factory. All the factories that were auctioned away have been bought up either by West Germans, or to a small degree by French, or Japanese. Maybe even Koreans. I don't know.

Yoo : Not that I know of.

Schmidt : Not that I knew of. But that foreigners were of course familiar to participate. But the mistake was that there were no East Germans. Naturally, they couldn't buy a factory, because they didn't have money. We made another mistake which may be very interesting for Korean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in the case of unification. Namely, the West German government, and nowaday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Germany, promised that within a very few number of years, the East Germans will have the same real wages as the West Germans, despite their productivity per man/hour still being much lower. And this led to nominal increase of wages, and also real increases of wages,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these wages, in terms of cost, went too high as compared to the quality of the product. So products could not be sold in the markets of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the wages were so high that they had too high prices. Therefore, quite a few of the employees had to be laid off. So we do have a relatively high number of unemployed in former East Germany today, which does not really make for a good feeling of the people, and doesn't really make for good political feelings of the people. Quite a few people were again

voting for the Communist Party in Eastern Germany, out of disappointment. So you have to consider whether or not you do the economic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 stages or in one step. It's a very complicated operation. We also made a third mistake by stipulating at too favorable exchange rates between the former East German currency and the Deutsche Mark. It was favorable for the East Germans in the first place, but later in that second stage, they were mistakes. It gave rise to unemployment. The unemployment rate in East Germany is at least double that of West Germany, and in fact, about 40-50% of the jobs which were filled in 1990 have been destroyed. Now, there are great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ermanies and the two Koreas. In regards to numbers, we had one East German per every four West Germans. The four West Germans had to tighten their belts financially, in order to finance East Germany's economic build up. In the case of Korea, the relationship is two to one. Only two South Koreans have to finance the economic build up for one North Korean.

Yoo : Which is more difficult.

Schmidt : Oh, yes. And it will ask for even stronger tightening of South Korean belts. It will not be very popular in that second moments. In the first moments, they will be all enthusiastic to evolve unification. But then, on the second day, when they are being told that taxes are increased and their wage increases are not as high as they are used to, then they will be disappointed. The point is, I think, that in your case, you need your stages, and don't try to do it all at once as we have tried to do, with a number of disappointments.

Yoo : Very good advice. I really appreciate that. Even more because, you

see, in Germany's case, you have tried in many different ways to approach East Germany, like you set up an office to take care of transactions between East and West. And then, you did have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nations. Also, you had an exchange of people: mutual visitations were allowed. Even with all these trials, German unification had created many difficulties and problems.

Schmidt : Oh, yes.

Yoo : That's right. But as far as Korea is concerned, we have never had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never had any chance to have mutual visitation programs, and we also never had any institutional arrangement.

Schmidt : There were not outsider visitations possible before unification. All this was the product of the unification. Before unification, the bulk of the population of East Germany was strictly held in control. It was the same situation as in North Korea, and it only broke up due to the breakdown of the Soviet empire, the communist world, of the eastern half of Europe. Now, I have the feeling that right now, nobody in Moscow and nobody in Beijing is really interested in maintaining the communist dictatorship in Pyongyang. I think they are not interested in helping them anymore. They are getting less financial help than before. They are getting less help in terms of food than they did. So the prospects, the economic prospects for the Pyongyang government today, are much worse than they used to be 5 or 10 years ago. So, I think they will break down for economic reasons. There may be uprisings. There may even be conflict inside

North Korea. This government will break down.

Yoo : Sooner or later!

Schmidt : Sooner or later! I do foresee opening up between the two Koreas within my lifetime. I am 76 years old. I do foresee a unification process to start within my lifetime. Within my lifetime, I am deeply convinced of this.

[Road to the Reunified Korea]

Yoo : You mention the process, not the unification completion. What kind of first step would you like to recommend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the talk?

Schmidt : I think you should offer, even if you are rebuffed three times, you should offer fourth time, agreements, treaties. You should offer agreements and treaties vis-a-vis Beijing, by the way. Not just Pyongyang.

Yoo : That's Beijing's interest.

Schmidt : Oh, yes. The better the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Beijing, the better for the Korean nation. The political relations between Beijing and Seoul are not the best ones.

Yoo : It's not the best, but it's improving rather substantially.

Schmidt : I observed the process of improvement, but so far, it's not enough. The Chinese, they are nurturing, they are not telling you, they are not telling us. But in their heart of hearts, they have a cultural superiority complex, vis-a-vis you, and even more, vis-a-vis the Japanese. At the same time, they have a hidden technological inferiority complex, which means that they are in the complexity of complexes. At Beijing, one has to understand thi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they have a cultural inferiority complex vis-a-vis the Chinese. They deny to themselves that in many many ways, they have inherited their culture from the Chinese by way of the Korean peninsula, by way of Korea. They deny this historical fact to themselves, but it is fact.

Yoo : Historical fact.

Schmidt : Yes. So you are dealing with two neighbors who are nurturing complexes.

Yoo : You are absolutely right. We should be able to utilize Chinese influence in melting the dictatorship which still exists like a stronghold in North Korea. Also, Japanese contribution would be substantial in the years to come. But as I observed some of the economic situations in the North, I had a very rare opportunity to visit Pyongyang and some country-side cities back in 1992, as part of the Tuman River Area Developing Project (TRADP) at the time. What was surprising to me was the North Korean residents having not seen any changes out there in the international scenes, just take that for granted, that their way of living is just right. I mean, they could not have any options.

Schmidt : They have no possibility of comparison. They were closed from the world for a long time. It seems to me that the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have been living under dictatorships for one generation after another. It started with the beginning of the Japanese rul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sn't ceased. Therefore, they have almost no means of comparing. They are totally void of any means to compare the way in which they live with the way in which the people live in Seoul or the people in, let's say, Osaka. All closed off. So, one of the pressing necessities is how one can overcome this total boycotting of information from the outside by the Pyongyang government. Maybe through radio: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overcome it by television, but radio will be a means, I guess. And maybe joint ventures between South Korean corporations. And, Chinese corporations on North Korean soil seems fantastic, but must not be fantastic.

Yoo : That brings me to the questions that I asked a few minutes ago. That is, East Germany and West Germany had enough chances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Letters were exchanged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some westerners were allowed to visit the other side.

Schmidt : Very few.

Yoo : Very few? But letters weren't prohibited at that time.

Schmidt : The main means of communication was radio.

Yoo : Radio, and television was broadcasted.

Schmidt : To some degree, television. The communists in East Berlin over the years tried to make television communication impossible, technically impossible. But they did not succeed. There were rare parts of East Germany where our television broadcasting couldn't reach into. But the main means of communication was radio.

Yoo : But the radio broadcasting was also totally blocked in North Korea. I was carrying my own shortwave radio at that time, and I tried my best to catch a South Korean broadcasting, but every single station was blocked by electronic solvencies. So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penetrate into the North Korean society to tell them, "a lot of changes are going on outside the nation". So, that is the most difficult part of the problem between North and South.

Schmidt : But you will succeed.

Yoo : We'll keep on trying.

Schmidt : You will succeed even if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communistic dictatorship in the world today. The fact that all the other communistic dictatorships have broken down in a process of withering away, like Fidel Castro of Cuba, the Kim people in Pyongyang will also wither away.

[Preparing for Unification]

Yoo : Well, one more final question, if you wouldn't mind. Our nation is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reunification. At the government level, we do have a specialized ministry called National Unification Board. They propose all kinds of different programs, from nuclear issues to humanitarian programs to help out the North Korean people. But in the private sector, some people who are separated from North Korean families would like to raise some funds which will eventually be used for the reviving of the North Korean economy. What other programs would you recommend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either on the government level or the private sector level?

Schmidt: I don't believe that I have any proposals to submit to this question. As time goes by, the recipes for Korean unification may have to change, because the situations are changing. What you need, in my view, is a public debate and an on-going debate over the years, to come on how you should act on unification. And it is, I think, quite understandable, even more so as it is your interests, to hear differing views, differing concepts. It need not come from high above. Your economists, political scientists, you politicians should develop an on-going debate on that same subject. And I think you should include into this debate, scientists from China, from Japan, from the United States, and from Europe. They should participate in that debate.

[Concluding Remarks]

Yoo: Thank you very much, Chancellor Schmidt. Let me summarize quickly what we have talked about in our discussion. Number one, the national unification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priority for Korea in years to come. In order to

accomplish national unif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approach and sound the neighboring countries, particularly China, Japa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Also, Korea should be able to use its own economic capacity to help out North Korea in one way or another. Korea should push hard to find some communication channel with North Korea, so that the North Korean people in general can understand what's going on outside their own country. Thirdly, an educational program would be very important, in order to bring up, for younger generations, that this nation's reunification is indeed the first priority of the nation. And, number four, as the Korean economy develops and gets into the developed country stage, Koreans must be able to undertake some more responsibilities in the world community. And in the future, Korea, as a member of the OECD,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some of the major international affairs.

Schmidt : I do agree with your summary, but I would like to add one footnote. Don't make your people work too hard. You have a tendency of working too hard. And if you speak about education, you also should not overlook the fact that enjoying theater and literature needs some education. God did not create the human creature just for work. There should also be some room for enjoying life.

Yoo : I thank you very much. Your advice and recommendations are absolutely invaluable in furthering Korea's development programs and reunification policies.

Schmidt : Thank you very much!

Yoo : Thank you very much. It's much appreciated. Chancellor Schmidt, finally, I'd like to ask for your congratulatory remarks to the Korean people on this occasion of Korea's 50th anniversary of liberation.

Schmidt : Well, I think you have every reason to be proud of the unforeseen enormous success that South Korea has been able to bring about in the last half century. And I think it all can give you the self-assurance that you are going to do well also in the upcoming decades, as well as the next century.

Yoo :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KIEP 發刊資料 案內

■ 政策研究

90-01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金學洙
90-02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閔充基
90-03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90.05)	金宗萬
90-04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90.05)	孫讚鉉
90-05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金泰俊
90-06	ASEAN 主要國의 貿易·産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柳在元
90-07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金學洙
90-08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金南斗
90-09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産業의 國際化 ('90.10)	張義泰
90-10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徐相祿
91-01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姜興求
91-02	主要換率變動의 特性과 政策示唆點 ('91.03)	金宗萬
91-03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金廷洙
91-04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李長榮
91-05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吳勇錫
91-06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朴濟勳
91-07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金時中
91-08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李相學
91-09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曹琮和
91-10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閔充基
91-11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金學洙
91-12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蔡 旭
91-13	우리나라 서비스産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91.08)	俞鎮守
91-14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裴眞永
91-15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産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金泰俊
91-16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洪裕洙
91-17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金南斗
91-18	한국·臺灣·日本의 産業政策과 産業構造調整 ('91.09)	柳在元
91-19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金宗萬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關係 政策 및 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の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日本의 輸入品流通과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分野別 評價와 우리의 對應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화時代의 亞·太 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들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和 우리들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와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 : 最終協定의 분야별 評價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的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權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燾
93-43	美國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12)	崔仁範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94.07)	共 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4.12)	共 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력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丁相朝
94-14	外換 自由화와 換危險管理 ('94.12)	朱尙榮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94.12)	金龍龜·朴成勳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李正淵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 主要業種의 成果分析和 向後展望('95.05)	申晚秀 李掌魯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95.05)	權才重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和 進入 流通障壁: 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95.05)	金益洙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和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和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的 展開 ('90.10)	蘇侖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화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화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 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E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産業의 變化和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 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 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濟協力 戰略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鈺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滿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外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兪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鈺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의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94.5)	共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 실태와 示唆點 ('94.10)	任千錫
94-11	環境產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同
94-14	서비스產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 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級影響 ('94.12)	李昌在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94.12)	曹琮和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設立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對應戰略 ('94.12)	金學洙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94-23	서비스 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94.12)	禹榮洙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94-26	專門職 서비스 資格認定에 관한 研究 ('94.12)	金址鴻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Eugene John Park
94-28	海外資金調達의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과 示唆點 ('94.12)	張義泰
94-29	技術標準의 國際的 現況과 政策示唆點('94.12)	孫讚鉉
95-01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95.04)	兪鎮守
95-02	貿易과 環境: GATT/WTO의 논의('95.04)	李鎬生
95-03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 形態 比率分析('99.05)	康仁洙
95-04	農畜産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方案('95.06)	姜奉淳
95-05	일본기업의 對 아시아 직접투자('95.06)	李東琪, 李允哲
95-0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95.08)	金準東

■ 세미나資料

90-01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共 同
90-02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朴泰鎬 編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06)	吳勇錫 編
90-04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90.10)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91-01	EC 統合과 우리의 對應方案 ('91.02)	閔充基 編
91-02	Uruguay Round :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91-03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91.12)	Jang-Won Suh (ed.)
92-01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 Problems and Prospects ('92.06)	Chung Ki Min (ed.)

92-02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Jehoon Park
93-01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Jin Young Bae (ed.)
93-02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Chang-Jae Lee
93-03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Bak-Soo Kim
93-04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93.12)	Chang-Jae Lee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06)	任千錫 編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想 ('94.06)	金時中 編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서덜랜드 GATT 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孫讚鉉 編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洪裕洙 編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94.12)	韓宅煥 編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95.04)	金時中

■ Working Paper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金廷洙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08)	L.Y.Mytelka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郭承溙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朴泰鎬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洪裕洙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07)	柳莊熙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Taeho Bark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Jang-Hee Yoo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01)	In-Soo Kang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Jai-Won Ryou and Byung-Nak Sona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Sung-Hoon Park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06)	Wook Chae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Chung Ki Min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Joo-Sung Jun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93.12)	Yoo Soo Hong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Jin-Soo Yoo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Chang-Jae Lee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JeHoon Park
94-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Yoo Soo Hong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통일

1995年 8月 28日 印刷

1995年 8月 30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洞942-1番地君子빌딩14層-18層

電話 : 528-5555 FAX : 528-5511, 5522

登錄 : 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譯載·複寫器 禁함

ISBN 89-322-0001-7